

## ■ 2026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전통예술분야 3차 실연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6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전통예술분야
- 회의일시 : 2026년 4월 4일(토) ~ 4월 5일(일)
- 회의장소 : 고양아람누리 새라새극장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강신애, 김소라, 남인우, 박치완, 윤중강, 임준희

대한민국 공연문화를 전향적으로 이끈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을 심의한다는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면서도 매우 신중함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간 전통예술분야에서 선정된 작품들은 질적인 면에서도 우수했으며 재공연 되는 사례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연작품에 있어 제작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유통인데, 전통예술 분야 역시 국내 유통 구조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향후 해외진출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에 실연심을 한 작품들은 모두 우수했습니다. 각기 뚜렷한 개성을 지니고 있으며, 많은 사람이 보고 듣고 즐기며 공감할 수 있는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의 과정에서는 기존 작품과의 차별성, 그리고 향후 유통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였습니다. 모든 작품은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만큼 수준 이상에 도달해 있었음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또한 예년에는 융합 또는 복합이라는 이름 아래, 전통예술 자체가 다소 소외되거나 때론 주객이 전도되어서 안타깝기도 했지만, 이번 심의 대상 작품들은 모두 전통을 기반으로 한 창작이라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선정된 작품들이 앞으로 어떻게 다듬어져 창작산실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완성될지 큰 기대를 하게 합니다. 일부 작품에서는 기존 전통예술 공연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도가 돋보였고, 한편으로는 20세기에 친숙했던 형식을 21세기 관객과의 접점을 고려하여 새롭게 재구성한 작업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2026년이라는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끼는 바를 담아내려는 시도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정된 시간과 공간에서 보여준다는 건 창작자에게 상당한 부담이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참여하는 팀의 이런 고충을 인식하면서, 인터뷰 등을 통해서 최대한 창작자의 의도와 공연의 성과를 예상하면서 심의했다는 걸 밝힙니다. 연출 및 음악 구성, 영상과 조명디자인, 음향, 무대, 소품 등 전체 무대의 구성요소를 고려하면서 얼마나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적절한가를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실연심에 참여한 작품들은 모두 개성이 있고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작품의 측면에서 그 가치가 동등하리만큼 높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전통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그 작품을 통해서 전통예술의 외연을 넓히게 되는 '전통의 확장성'에 큰 역할을 해 줄 작품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이 '전통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이 시대의 많은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전통의 동시대성'을 더욱 염두에 두어서,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자리매김하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최종 네 작품을 선정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모두가 전통과 창작의 두 잣대로 보았을 때도 손색이 없었고, 앞으로 작품의 유통 측면에서 가능성이 있는 작품들이었기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올해의신작'이라는 해당 사업의 취지와 전통예술의 동시대성을 더욱더 생각하는 작품들을 선정하고자 심혈을 기울였음을 밝힙니다.

이번에는 특히 그간의 창작산실과 비교하여, 전통과 창작, 예술과 유통적인 측면에서 좀 더 다른 결이 느껴지는 작품을 만난 것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런 작품들은 앞으로 창작산실 전통예술 분야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보다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계층이 전통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모든 작품이 그 자체로 다 큰 의미가 있음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그런 가운데 창작산실에 선정되는 작품은 결국 '전통의 가치'와 '전통의 확장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작품이어야 함에는 틀림없을 것입니다. 심의위원들은 모든 작품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심의하였으나, 결국 '창작산실'의 본질에 더 부합하는 작품을 선정함에는 심의위원들 간의 이견이 없이 거의 일치했습니다.

작품마다 중시하는 기교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이 있다. 이런 것들이 깊이 있게 연구되고 확장되면서, 앞으로 창작산실에서 발표될 때는 더욱더 훌륭한 작품으로 거듭나게 되길 희망합니다. 이제 창작산실의 종착지는 결국 세계의 예술시장입니다. 최종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작품을 예상한다는 건 매우 기쁜 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선정이 되지 못한 작품들도 저마다 매우 훌륭한 작품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확신합니다. 이번에 참여한 작품 모두 전통을 보는 저마다의 시각이 분명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미래의 전통'으로 정착하면서 전통예술의 확산에 크게 기여해주길 기대합니다.